

# 몇 가지 발아 전처리가 반디나물 발아촉진에 미치는 효과

한상욱, 임상철<sup>1)</sup>, 김용삼, 이영균, 전명희  
양평군 농촌지도소, <sup>1)</sup>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Effects of Germination on Bandi namul(*Cryptotaenia japonica* Hassk) Seeds with Pretreatment

Sang Wook Han, Sang Cheol Lim<sup>1)</sup>, Yong Sam Kim, Young Kyun Lee, Myung Hee Chun  
Yangpyung Agriculture Guidance Center, <sup>1)</sup>Sangji University.

미나리과의 야생식물인 반디나물은 일명 파드득나물 혹은 참나물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나 참나물과는 다른 식물이다. 그 모양이 참나물과 흡사하며 독특한 향과 감칠맛 나는 섬유소의 저작미 때문에 고급의 산나물로 판매되고 있다. 반디나물은 재배기술이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종자의 발아특성과 생리적 기작이 검토되지 않아 일부 농가에서는 야생종자를 채취하여 노천매장에 의하여 재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디나물의 발아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채종 후 종자보관방법별 발아율을 조사하였으며 발아 전처리로서 저온처리, 침종처리, 성장조절물질 처리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반디나물의 발아 적온은 15-20℃이며 상온에 저장된 종자는 전혀 발아가 되지 않았던 반면에 층적매장 종자와 습윤저온 저장 종자는 발아율이 극히 양호하였다.

발아 촉진을 위하여서는 종자를 신선한 물에 3-5일간 침종 후 0-5℃의 상태로 20일간 저온처리를 하면 상온저장 종자의 경우도 발아가 촉진됨을 구명하였다.

성장조절제의 경우 GA 50-100ppm의 분무처리로 발아가 촉진되었으나 그 효과는 확실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반디나물 종자의 발아 전처리로서 침종 후 저온처리를 행하면 연중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